

“교육 이슈 쉽게 정리해줘 유용해요”

취재 박선영 리포터 hena20@naeil.com



거주
경기 양주시
삼송동



자녀
고3, 고1



구독 기간
1년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인터넷 강의를 들어왔어요.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담당 선생님이 바뀌는데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내일교육〉을 추천해주셨죠. 많은 도움이 될 거라며 정기 구독까지 권하셔서 호기심에 읽기 시작했어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방향을 주는 잡지더라고요.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어려운 이야기도 쉽게 풀어주는 점이 특히 좋아 구독하게 됐어요.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193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_ 한미 관세 협상 나름 ‘선방’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이슈 콕콕’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를 소개해 꽤 유용해요. 특히 정치와 국제 정세는 용어나 맥락이 어려운데 재미있게 풀어줘서 훨씬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사회 이슈를 보는 시야를 넓혀주기도 하고요.”



1201호

WEEKLY THEME_ 고교-입시 잇는 대학 고교학점제 돌파구 될까

“고교학점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 유튜브 강의도 자주 봐요. 영상은 다시 찾아보기가 번거롭고 정보가 금방 흩어지는 것 같은데 잡지는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 훨씬 편하더라고요. 직접 읽고 표시해가며 정리할 수 있으니까 기억에도 더 오래 남습니다.”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큰아이가 고3이라 입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돼요. 바뀌는 입시 제도나 교육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줘서 지금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유용하고요. 내용이 어렵지 않고 핵심이 잘 정리돼 있어 이해하기 쉽고, 과목별 학습법을 참고하거나 진로를 탐색할 때도 든든해요. 내신과 수능 준비를 함께 연결해볼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요.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계열이나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대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요. 입시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이 들어 아이도 답답해할 때가 많고요.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상대평가 과목이 늘어나 2등급이 34%까지 묶이다 보니 예전보다 변별이 어렵더라고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성적에 따라 미묘하게 우월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앞으로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어서 긴장되고 불안합니다.

〈내일교육〉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나요?

고1인 둘째 아이는 영어와 수학은 잘하지만 사회나 과학처럼 암기 위주의 과목은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효율적인 학습법이나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주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고교학점제도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Reporter's A/S

국어는 수학이나 과학에 비해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리기 어렵고, 공부 시간을 잠시 줄여도 바로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국어를 '재능의 영역'으로 여기곤 하죠. 현직 국어 교사의 조언을 통해 국어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과 여러 학생이 자주 빠지는 함정을 확인해보세요. '감'이 아닌 '전략'으로 국어를 준비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본지 1178호
'WEEKLY THEME_ 상위권
복병? 수능 국어 공부법'
기사 참고

